테마파크·물놀이 시설 등 잇따라 서는데

나주 관광정책이 없다

나주에 관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나 관광 정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지역에는 삼한지 테마파크에 이어 최근 대규모 위락시설인 '중흥 골드스파'가 문을 열었으며 도심에 또 다른 실내 물놀이 위락시설이 착공되고 천연 염색관을 찾는 외지인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이나 특산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나주시의 관광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봄 드라마 주몽 종영이후 삼한지 테마 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속히 줄고 있으나 나주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초 삼한지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6월에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무료 입장객을 포함해도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특단의 대책없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삼한지 테마파크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관광객들이 쉽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지도, 관광 책자 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웰빙 영향으로 다시면 천연 염색관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주변 도로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 외지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다시면 천연염색관을 찾은 관광객 한모(46·대전) 씨는 "광주를 거쳐 1번 국도를 이용했으나 입구에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연염색관측은 1번 국도에서 구진포로 들어가는 길목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나주시에 여러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중흥 골드스파 이용객들이 삼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 일부를 할인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노인건강 돌보미 담양군 앞장

담양군이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노인들의 '건강 돌보미'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대학 수강생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과 눈 검진을 실시했다. 〈사진〉

결핵협회와 이연 안과가 참여한 이번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정밀진단 후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5명에게는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실시된다.

결핵·눈 무료 검진 130명 백내장 수술

이번 검진은 담양군 역점 시책인 방문요양사업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눈 검진 결과 노인 백내장 유병율이 38%에 달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검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월부터 노인층 눈 검진을 실시해 130명에게 수술을 실시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나비·곤충엑스포' 전국 순회 홍보

함평군 실버 홍보단이 지난 4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보단은 최근 서울 명동과 강남역 주변, 인천광역시 로데오 거리에서 젊은 층을 겨냥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딱정벌레 모양의 뉴비틀 차량과 옥색 도포에 갓을 쓴 이색복장에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문구가 새겨진 피켓과 휘장을 두르고 홍보에 나서 가는 곳마다 눈길을 끌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군 인사단행…조직화합 중점

보성군이 최근 조직 화합과 군정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사무관 2명 승진을 포함한 15명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인사에 이어 1일자로 6급 이하 17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화합과 안정에 역점을 뒀으며 조직개편과 공직자 적성에 맞는 인력배치로 군정 능률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혁신사업과 개방농정 등에 대비해 인력을 중점 배치했으며 본청과 읍·면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복지분야 인력을 보강했다. 또 녹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행정 정착 차원에서 친절 공무원을 우대했다.

이밖에 중복된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일부를 사무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6급 승진 10명 등 총 41명이 승진했으며 내부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인사'를 단행,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명품 '강진청자' 세일합니다

강진청자문화제때 20% 할인 판매

강진 청자박물관(관장 윤순학)이 '제 12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중 명품청자 판매전에 입점하는 17개 업체의 작품을 평소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강진군은 한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진청자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같은 할인판매를 기획했다.

또 전통 화목(火木)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을 즉석에서 경매로 판매하는 화목가마 본벌 요출 및 즉석 경매행사도 실시한다.

한편 '강진청자문화제'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강진청자 도요지 일대에서 열린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군의원이 공무원 폭행 술자리서 발길질·폭언

강진군의회 김모 의원이 면장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군청 공무원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달 30일 저녁 강진군동면 모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는 안모 면장에게 친구를 소개하던 중 안 면장이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자기를 무시한다며 발길질을 가했다.

김의원은 또 이를 말리던 임모 계장에게도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다.

이에대해 전공노 강진군지부는 "군의회와 김의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주민소환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김의원은 "술자리에서 친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선·후배 사이인 안면장과 취중 언쟁 및 약간의 폭언이 오갔으며 현장에서 서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해남읍~삼산면 4차선도로 개통

해남읍과 삼산면을 연결하는 국도 11.4㎞ 구간 4차선 도로가 지난달 31일 개통됐다.

지난 1999년 6월 착공된 이 도로는 총 사업비 863억원이 투입됐으며 삼산교 등 교량 12개소가 설치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통행거리가 기존 15.5㎞에서 4.1㎞가 단축됐으며 통행시간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폭이 좁고 굴곡이 심했던 도로가 확장돼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편리하게 해남 땅끝마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